

〈宗 訓〉

忠孝 · 德禮 · 勤謹 · 恭儉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우애하고 덕을 닦고 예의를 익혀 남을 존경하며 부지런하고 공경한 마음으로 성실하고 검소한 삶을 살자이다.

清州韓氏報

發行人 韓基虎

編輯人兼 韓一

主 幹

印刷人 韓範東

한영인쇄사 041-563-74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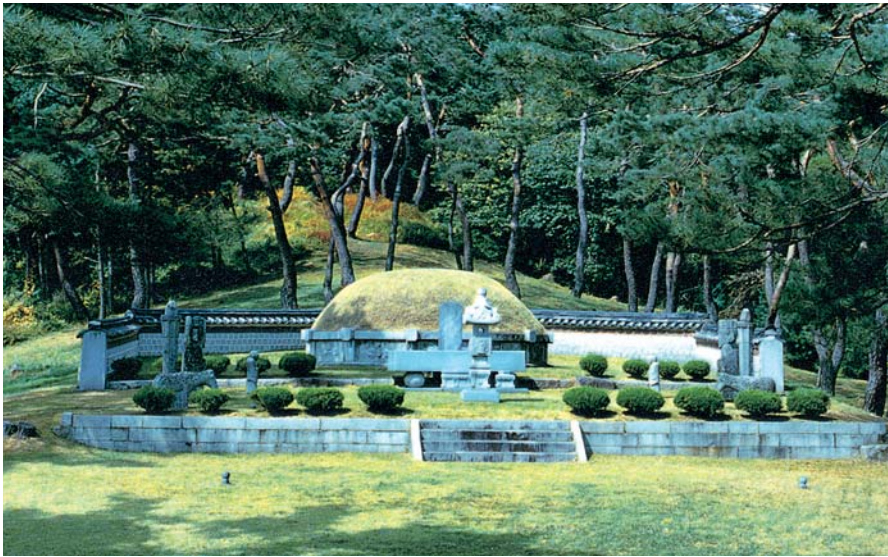
(우: 110-719)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167 세종로 대우빌딩 복합동 602호

홈페이지 : 청주한씨 중앙종친회(www.cheongjuhan.net)

☎ 720-6370~1 FAX : 720-9215

2015년 始祖時享은 陰曆 10월 1일 (양력11월 12일)로 還元

—宗賢들의 자발적 건의를 바탕으로 9월21일 회장단 회의에서 결의
—시조묘 · 세일재;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547



시조 태위위안공(諱·蘭)묘소 전경



세일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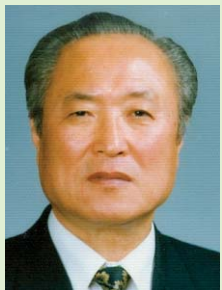
2015년 9월 21일 개최된 회장단 회의에서 시조 시향을 陰曆 10월 1일로還元 개최기로 절대다수로 결의했다. 금년은 양력으로 11월 12일이 된다. 이날 회의는 상용 事務處長의 사회로 국민의례에 이어 참석 회장단 소개에 이어 회장 인사가 있었다. 基虎 중앙종친회장은 “오늘 우리의 전통명절 추석을 앞두고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公私간

바쁜시 가운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우리는 太尉威襄公(諱·蘭) 할아버님의 자손으로서 萬枝同根임을 잊지말자며 서로의 다양한 의견도 중요하지만 서로 易地思之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의견도 傾聽하는成熟한 모습을 기대한다” 며人事했다.

이어서 경과보고는 유인물로 대한다고 보고했더니 동의한다고 박수로 답

하고 본격적인 부의안건 심의및 의결로 들어갔다. 종사운영 당면과업및 추진계획에 대한 심의가 있은후에 始祖時享日 단일화에 대한 난상토론이 있었다. 김수 西原君파 회장은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이니, 형식적 절차이행을 주장하였으나 의장은 시기적 물리적 이유등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하였으며, 萬敎 章悼公派 회장은 젊은 사

람들이 올 수있는 誘引策으로 주말농장을 만들자는 등의 좋은 의견이 오고간 후 금년부터 傳統日을 감안하여 陰曆 10월 1일로 시조 시향일을 변경 결의하고, 기타 종사발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 결의 한후 오찬을 간단히 하고, 오후 2시부터는 族譜編纂위원회 첫 회의를 4시경 마치고 회장단 회의를 마무리했다.



제25대 中央宗親會長
韓基虎 배상

仲秋佳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들과 함께 조상에대한 감사의 예를 올리며,
가족간에 친지간에 이웃간에 화목하고 즐겁고 평안한 추석 명절이 되십시오.
始祖時享日(陰曆10월1일)에는 가족동반 많은참석 바랍니다.

2015년 9월 21일 청주한씨중앙종친회

중앙종친회 계좌번호

- ◆ 청주한씨중앙종친회 국민은행 009901-04-016841 (회비, 헌성금, 종보비)
- ◆ 청주한씨중앙종친회 국민은행 009901-04-016854 (죽보 수단금)
- ◆ (재)청한장학회 국민은행 009-25-0015-377 (장학기금)

중앙종친회 사칭에 “절대로 속지마십시오”

중앙종친회를 사칭, 책자 구입을 권유하는 전화가 걸려오면
(02)720-6370~1로 중앙종친회에 확인하십시오

2015년도 제25기 理事 상견례 9월 6일 용산역 앞 용사의 집



이사 상견례에서 회의 하는 모습

2015년도 理 事 상견례가 지난 9월 6일 (일) 서울 용산 역앞 용사의 집에서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70여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종인 일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멀리 전남 영광의 삼재관리 위원회의 고문 및 부회장 등 전국 각지에서 참석했다.

基虎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원근거리를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며, 나이드

많고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감히 중앙 종친회 운영을 걱정하면서 종친회 발전과 한문의 번영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사명감을 갖고 소임을 마치고자 최선을 노력을 다 할것을 재삼 다짐하는 바입니다. 종현님들을 이사로 뒤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인사했다.

이어서 종인 일가의 종사 현안에 대하여 보고가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한 후 식사와 환담을 나눈 후 상견례를 마무리했다.

2015년도 제25기 운영위원 상견례 9월 3일 용산역 앞 용사의 집



운영위원 상견례에서 기념촬영

2015년도 제 25기 운영위원 상견례가 지난 9월 3일(목) 서울 용산역앞에 있는 용사의 집에서 운영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의는 종인 일가의 사회로 국민의례 · 주요 참석임원 소개 · 참석임원 상견례에 이어 회장 인사가 있었다.

기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계절에 대한 인사말에 이어 늘 함께해야 할 운영위원님들 4/4분기를 맞아 여러 가지로 공시간 바쁘시고 또 전국각처에서

원근거리를 불구하고 중앙종친회 종사를 위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종현님들을 중앙종친회 제 25기 운영위원으로 뒤희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감사드리며 이제 운영위원님들은 저와 함께 청주한씨 중앙종친회 제 25기 배를 함께타고 가야할 공동운명체라고 생각합니다.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즐겁게 생활하시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빈다”고 인사했다.

주요종사 경과보고

- 1) 2월 25일 : 2015년도 정기총회 개최
용산 뮤지엄 웨딩홀(200명 참석)
2014년도 결산(안) 및 2015년도 사업계획 · 예산 (안)
감사(철수 · 상영) 선임
- 2) 3월 13일 : 장학회 이사회 개최
2014년도 결산(안) 및 2015년도 사업계획·예산(안)
임원개선 -신임이사장 (기호 중앙종친회장)
-신임감사 (동경 부산회장)
- 3) 4월 5일 : 사숙 공부군외 한식 절사
- 4) 4월 11일 : 시조부군 탄신기념 축하행사 개최
청한각(300 명 참석)
식전 기념 행사 및 다례제 봉행
- 5) 4월 19일 : 예빈 경부군 시향봉행
- 6) 4월 23일 : 기성전 제향
- 7) 5월 1일 : 서원군부군외 시향봉행
- 8) 5월 3일 : 무강왕 · 왕비릉 춘향제 봉행
- 9) 5월 9일 : 제15회 장학증서 수여식
시조묘역(200명 참석)
장학생 41명 장학금 4,850 만원
- 10) 5월 16일 : 조기신산제 봉행 (추원재)
- 11) 6월 30일 : 제1차 자문회의 겸 상견례
- 12) 7월 8일 : 제1차 회장단 회의
- 13) 7월 26일 : 중앙회장 참판공파 안산중증 순방
- 14) 8월 14일 : 제 11회 석봉 한호선생 추모식
- 15) 9월 3일 : 제25기 운영위원 상견례
- 16) 9월 6일 : 제25기 이사 상견례

제7교 대동족보 편찬사업 및 인터넷 대동족보 사업

1. 대동족보 편찬사업

- 가) 족보 편찬 400주년 기념행사
 - 시기: 2017년도 1/4 분기 중
 - 방법: 축하행사는 중앙회 다른 행사와 병행 개최
- 나) 제7교 대동족보 편찬사업
 - 편찬사업: 족보편찬 400주년 기념행사 이전으로 계획
 - 추진일정 (안) 수립·세부일정은 추후 결정
 - 족보 편찬 위원회 조직구성
 - 세부 추진일정 및 활동 계획수립
 - 인터넷족보 편집 본
 - 편집 본 최종
 - 인쇄 및 제본 완료
 - 발송 및 반질
 - 결산(감사 · 총회) 및 조직해산
- 다) 인터넷 대동족보 구축 계속사업
 - 문중별 입보 현황 : 생략

2. 인터넷 대동족보 구축 사업

- 1) 추진경과
 - 2004년 1월 : 한글인터넷 족보 편찬발의(회장단회의)
 - 2월 : 정기총회에서 결의
 - 4월 : 한글인터넷대동족보편찬위원회 창립총회
 - 5월 : 사무실 개소 본격적인 사업 추진
- 2) 추진 목적 및 효과
 - 정보화시대의 흐름에 부응
 - 인터넷을 활용한 최첨단 대동족보 구축
 - 계속사업으로 진행하여 제7교 대동족보 편찬의 근간자료
- 3) 향후 추진 과제
 - 청주한문의 후손으로서 미입보된 청주한문의 입보독려
 - 상세편의 선대 계대 및 유사 및 자손록 정립
 - 제7교 대동족보 편찬기반 조성(2017년초 편찬 목표)

2015년 회장단 회의 · 족보편찬위원회 개최

—시향일은 음력 10월 1일로 환원

—족보편찬위원장에 基虎 중앙종친회장

2015년 9월 21일 회장단 회의및 족보편찬위원회가 30여명의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종친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상용 사무처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회의는 개회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참석회장단 소개에 이어 基虎 중앙종친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회장으로부터 세일재 보수관계와 청주한씨 선조 안내 팸플렛 제작관계 및 정관 개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경과보고는 최근 회의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고 중복되는 감도 있고해서 유인물로 대하자는 참석 회장님들의 의견에 따랐다.

부의안건 심의에있어 종사운영 당면 과업및 추진계획은 운영자금 조달방안 강구와 안내팸플렛 제작및 비치 · 정관 개정문제 · 종보편집개선문제 · 청한 문화 연구회 기구 설립에이어, 공지사

향으로 제7회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 · 고려통일대전 대제봉행에 관한 안내가 있었다.

시조시향일 단일화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단일화 당위성에 대하여는 참석자 대부분이 공감을 표하고, 서원군파 김수회장은 절차상의 문제는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같은 시조부군의 봉제사이자 진실 · 홀기 등 절차도 동일 하면서 제일(祭日)을 달리하여 봉행하는 것은 선조님께 불경이자 불효이며 화합돈목을 저해하는 일이라는데 대체로 뜻을 같이했다.

이어서 오찬을 간단히 마친후 오후 2시부터는 족보편찬위원회를 개최하여 족보 편찬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基虎 회장은 종원들과의 약속이니 만큼 난관이 있더라도 헤쳐 나가자고 말했다.



회장단 회의에서 인사하는 基虎 중앙종친회장

회의에서는 우선 편찬위원장에 基虎 중앙종친회장을 부위원장에 상용 사무처장을 감사에는 선교(충성공파회장) 상영(중앙종친회감사)를 우선 선출하

고 족보 편찬과 관련해서는 보다 많은 준비를 거친후 회의를 다시하기로 결의하고 모든 회의를 마쳤다.

人倫道德에 대한 小考



봉 수
수필가 · 매일신문대상 수상

민족 고유명절 추석을 앞두고 한 해를 점검해 볼 시점이라 인륜도덕을 잡동산이(雜同散異)로 이야기 해 보기로 한다.

흔히 도리에 맞지 않는 행위자를 일러 “오륜(五輪)도 모르는 무례자로구나”라고 개탄하기도 하는데 이는 유교를 중히 여기던 긴 역사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유교의 기본 지침에는 오륜(五倫)과 오상(五常)이 있음은 누구나 익히 알고 있을 듯하다.

인간은 정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에 관련하여 살아간다고 할 수 있는데, 정신세계에서 종교가, 대물관계에서 경국세제가, 대인관계에서 도덕과 인륜(人倫)이 생겨났다고 생각한다.

유교에서는 인간관계를 소위 五倫이라고 하여 군신(君臣)관계, 부자(父子)관계, 부부(夫婦)관계, 장유(長幼)관계, 붕우(朋友)관계를 기본으로 설

명하고 있다. 또한 오륜을 오교(五敎)라고도 하는데 이는 다섯가지의 가르침을 뜻함이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혈연관계이기 때문에 친밀의 정이 있어야 하고, 나라와 개인은 의리를 중히 여겨야 하며, 부부관계는 서로 침범(侵犯)하지 못 할 인륜의 구분이 있어야 하며, 어른과 젊은이 사이에는 마땅히 질서가 있어야 하며, 친구 사이에는 필히 신의(信義)가 있어야 하니 이것이 인간이 사회 생활을 함에 가장 중요한 질서요 규범이며 도리이며 도덕과 기강(紀綱)인 것이다.

이 다섯가지의 오륜을 서로 지킬 때 인간관계가 원만해지고 사회생활도 안정이 되는 것이다. 서로간의 오륜 질서가 무너지면 인간관계는 불신, 불화, 불안, 불편 급기야는 비극(悲劇)을 초래하는 것이다.

맹자(孟子)에는 父子有親, 君臣有義 순서로 되어있지만, 중용(中庸)에는 君臣有義 父子有親순으로 역어져 있는데 이는 충효중에 무엇을 중히 여길 것인가를 말함인데 굳이 분리할 필요는 없을 듯하고 현대 사회에서는 군신관계를 설명하기 난해(難解)함은 직장에서 지위와 역할의 상위자와 하위자간의 의리가 있는바 이로 대차하여 생각하면 무난할 듯하다.

오륜 중에서 다시 중요한 세가지 덕목을 말하면 군위신강(君爲臣綱) — 정부는 국민의 이끄는이가 되고, 부

위자강(父爲子綱) — 부모는 자식들의 근본으로 모범이 되어야하며, 부위부강(夫爲婦綱) — 남편은 아내와 식솔들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 즉 삼강(三綱)인 것이다.

우리들의 조상들이나 또한 우리들도 삼강오륜을 사회생활의 기본도덕으로 삼아 살아왔다. 오늘날에 생활 환경과 시대상황 변화에 따라 우리의 도덕과 인륜에 변화가 생겼지만 인간관계의 기본인 삼강오륜의 기본틀은 그대로 남아있다.

사랑과 의리, 질서와 예절, 신의와 우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인간사회의 필요한 덕목이요 기본 가치임에는 더 설명이 필요 없다.

유교는 인륜중심의 사상이다. 첫째는 인간관계와 인간공동체를 의미하고, 둘째는 사람이 가야 할 길,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의하는 것이다.

또한 유교는 오륜의가르침 이외에 다섯가지의 덕(德)이 있어야 한다고 말들 하는데 그중 네가지의 덕(德)을 특히 강조한 맹자의 논(論)을 사단(四端: 사람의 본성에서 나오는 네가지의 마음씨)이라고 한다. 여기에 “신(信)”을 더하여 이런바 오상(五常: 인의예지신)이라 하는데 이는 사람이 항상 지켜야 할 다섯가지의 도덕을 말 함인데 이를 풀이 하면 다음과 같다.

측은지심(惻隱之心)은 남의 불행이나 비극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

음이니 仁의시작이요 근본이며, 수오지심(羞惡之心)은 악을 행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義의 표상이니 여기서 정의감(正義感) 나오는 것이다. 사양지심(辭讓之心)은 겸손하고 사양하는 마음으로 禮의 시작이요근본이며, 시비지심(是非之心)은 옳고 그릇됨을 가르는 마음이니 지혜의갖춤을 말함이니 올바른 사리판단력을 뜻함이며, 여기에 信은 참됨과 믿음이니 언행일치하는 자세를 뜻함을 배워야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제도 중에 가장 이상적인 것이 家族이라 할 수 있고 그 단위가 家庭(가정)이다, 이는 사랑과 도덕의학교요 최초의 배움터가 가정이니 부모가 인간의 최대 중요한 스승이 되는 것이다.

또한 가정은 사랑과 혈연으로 결합된 공동체이니 인간이 마음되로 선택하고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적으로 결정된 소위 “運命共同體(운명공동체)”이니 아버지는 義로워야 하고, 어머니는 仁惠해야 하고, 형은 동생에 대하여 우애가 두터워야하고, 동생은 형에게 대하여 공손해야 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대하여 효성이 있어야 한다. 이를 五典(오전) 혹 오교(五敎)라 하며 가정윤리를 뜻함이다.

우스개말로 ‘남의 제사에 밤 대추한다’란 말이 있지만 “우리 淸州韓門들께서 한번이라도 읽어 주십사”하는 희망으로 처음 인사로 대합니다.

청주한문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이자 국가의栋梁(棟樑)으로 육성하는 일

35억 장학기금 조성에
전종원의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장학기금 추가조성 약정 및 납입협황 (우측 도표 참조)

※ 장학기금 출연금 계좌번호

◎국민은행 009-25-0015-377

예금주 (재)청한장학회

※ 장학기금 출연금 납입 방법

◎계좌송금 : 국민은행 009-25-0015-377.

◎지로송금 : 무 정액 지로용지 이용 (종보 첨부)
청한장학회 기금납입용

◎방문납입 : 중앙종친회 사무실 방문 및 납입

장학기금 추가조성 약정 및 납입현황

대상기간 : 2014. 6월 1일 ~ 2015. 9월 24일 현재

(금액단위:천원)

문종 및 단체	대표	추가약정	기 납입		
			'14.6~12월	'15.1~9월	계
시외공단위장학회	양명	35,000	35,670		35,670
국산공	길수	30,000	10,000	20,000	30,000
광천공	추태	50,000	50,000		50,000
판관공	기인	15,000		15,000	15,000
이원공	준석	16,500	16,500		16,500
청파공	상필	13,000	13,000	2,000	15,000
상언공	택수	15,000			
신규 단위장학회	성용	50,000	8,000		8,000
신규	성용	50,000			
신규	광전	50,000			
신규	일환	50,000			
신규	장도	50,000			
삼재관리위원회	동석	100,000		30,000	30,000
장도공 (도장동)	삼석	50,000			
검교참판공문중	영수	50,000			
참의공문중		50,000			
판서공문중	상영	50,000			
정혜공문중	추태	10,000	8,200		8,200
부산시 (상훈공통합)	동경	12,000		4,000	4,000
소계		746,500	141,370	71,000	212,370
대구경북단위장학회	희섭			21,000	21,000
세마공	효동		14,200	600	14,800
감사공	강			13,000	13,000
몽계공문중	석관			10,000	10,000
한인단위장학회	기천		6,820	3,000	9,820
계		746,500	162,390	118,600	280,990
각 광역시도			16,800	80,510	97,310
합계			179,190	199,110	378,300

* 15년 9월 24일 현재;추가약정금액 746백만원 대비 납입 212백만원 534백만원 미납

서울 · 수도권청장년회 창립 10주년 기념(제2부)

천하 제일비경 장가계로 친목수련여행



보봉호 앞에서 단체기념사진

人生不到 張家界, 百歲豈能 稱老翁!
영화 아바타의 배경 모티브가 된 곳...
「천문산, 천문동, 귀곡잔도, 유리잔도,
천문산 쇼」

천문산은 해발 1,518m의 장가계 명산으로 산 전체가 모두 절벽이며 봉우리는 하늘에 닿을 듯 장대한 산이다. 장가계의 성지로서 장가계의 영혼이고 호남 서쪽의 제일가는 신성한 산으로서 천문동, 귀곡잔도, 유리잔도, 천문산사가 위치해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산이자 장가계 여행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곳이다. 천문산정상까지 올라가는 길, 시내에서 도심을 관통하는 세계최장 7,455m의 천문산 케이블카

를 이용하니 편도만 약 40분정도 소요가 된다. 케이블카에 이어 리프트로 갈아타고 20분 정도 이동하니 천문산의 가장 높은 곳 1,518m에 위치한雲夢仙頂에 도착한다. 운몽선정에 오르면 천문산 주변의 16개 봉과 무릉원의 경치가 눈앞에 펼쳐진다. 수림이 울창한 보행로를 따라 어느 정도 이동하니 깎아지른 절벽위에 길게 늘어져 있는 약 2km정도의 귀곡잔도, 귀신들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뜻으로 만들어 졌다는 이 길을 걷다보면 스릴감과 공포감에 오금이 저려오지만 조망되는 천문산의 풍광이 절경이라 탄성 또한 절로 나오는 곳이다. 절벽에 이어붙인 험하고 어

려운 공사라서 사형수들을 동원해 만들었다 하는데 공사 중 3천여 명이 추락사하였다고 한다. 2011년에 개통되어 동방의 하늘 길로 불리는 유리잔도는 해발 1,430m에 위치하고, 폭 90cm, 길이 60m에 달하는데 전체 유리는 고투명도 강화유리로 되어있고 귀곡잔도와 함께 천문산에서 스릴과 공포감을 최고로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실로 대단하다는 생각뿐이다.

아치형 통로로 이어진 에스컬레이터를 수차례 갈아타고 내려와 도착한 천문동,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석회동굴로 동굴의 높이 130m, 너비 57m의 대자연의 거대한 결작 품이라 할만하다. 1999년 세계 곡예비행 대회에서 전투기가 이 동굴을 통과하면서 세상에 많이 알려졌다 한다. 999계단 길 대신 에스컬레이터와 셔틀버스를 타고 하산하며 맞이하는 하늘로 통한다는 通天大道 99개 고갯길, 깎아지른 절벽과 아슬아슬한 11km의 고갯길 역시 많은 볼거리와 스릴감을 전해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1년 365일 중 200일 이상이 비가 오는 지역이지만 당일 비가 내리고 운무가 끼여 비경을 잘 보지 못함이 못내 아쉽기만하다.

천문산 쇼(천문狐仙)는 아시아 영화계의 거장 장예모감독이 연출한 작품으로 천문산의 최대 골짜기에서 펼쳐

지는 감동적인 사랑이야기다. 천문산 전체를 조명을 이용하여 무대와 배경으로 쓰고 있고 출연진만 5백여 명이 되는 장대한 스케일의 뮤지컬형식이다. 인간세상을 갈망하여 사람을 사랑한 한 마리 여우와 여우인줄 모르고 사랑을 한 나무꾼 유해의 슬픈 사랑을 다룬 뮤지컬로 온갖 역경을 이겨내면서 이루지 못한 사랑을 천년을 기다린 끝에 사랑을 이루게 된다는 내용이다. 한 번에 3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노천극장에서 1시간 30분정도 공연을 한다. 한국인이 많이 찾는 곳이기에 한글자막이 나오지만 맞춤법과 어감에 맞지 않는 표기도 수차례 발견된다. 황금빛 조명으로 빛나는 입구 건물이 환상적이다.

장가계, 한번쯤은 가볼만한 곳이자 다시 한 번 방문하고 싶은 아름다운 곳이라는 소감과 함께 아쉬움은 뒤로하고 인천공항을 향하면서 4일간의 유익하고 소중한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삼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조님의 음덕으로 많은 회원과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 10주년 기념여행을 통해 화기애애하게 즐거운 시간을 함께함에 기쁘고 감사하다. 모든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고 마음먹고 실행하기에 달려있다. 앞으로 더 많은 회원이 참여해서 청장년회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더욱 발전시켜 나감은 물론 향후 종사를 이어받아 훌륭하게 이끌어 나가자고 제의함에 전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과 박수를 받았다.

(글· 종인 상무)

특별기고

전통 제례의 기원

동 역(문경공파 회장)

인류(人類)가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제례(祭禮)는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것은 인간 스스로가 미약함을 인지하여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데서 그 기원(紀元)을 찾을 수 있다. 하늘이 내려주는 천재지변(天災地變)을 막아달라고 정성을 다하여 천지신명(天地神明)에게 제사(祭祀)라는 이름으로 하늘이 보살펴 주실 것과 경이(驚異)로운 영험(靈驗)을 빌었던 것이다.

천지신명께 지내던 제례의식이 제사로
부족사회(部族社會)를 이루던 시절부터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부족(部族)들이 모여 국가(國家)를 건립한 후에도 왕을 대신하여 천관(天官)이라는 직책(職責)의 제사장(祭司長)이 제사를 전담(專擔)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전해오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동서고금(東西古今)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이어져 왔다는 것이 많은 역사(歷史)에 기록되어 전해오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안위(安慰)를 위하여 하늘과 천지신명(天地神明)에게 지내던 제례의식(祭禮儀式)이 차츰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아버지에게도 제사를 지내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부모의 제사로 시작하였으나 문명이 진화되고 제례문화(祭禮文化)가 발달되면서부터는 아버지를 시작으로 고조고(高祖考)까지의 제례가 사회적으로 예법이라는 용어로 통념(通念)화하게 되었다.

신주는 우제(虞祭)부터 연제(練祭)까지
그러다가 국가의 원훈(元勳)들에게 정중한 예의(禮儀)를 갖추어 제사를 지내다 보니 각 문중(門中)마다 국가공훈(國家功勳)이 없는 선대(先代)의 조상들에게도 사당(祠堂)을 지어 신주(神主)를 봉안하여 정중하게 예의(禮儀)를 갖추어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주자가례(朱子家禮) 232쪽에 보면 신주는 우제(虞祭)부터 소상(小祥)이라고하는 연제(練祭)까지 뽕나무로 신주(神主)를 만들었

고, 연제 이후에는 밤나무로 신주를 만들어 모신다고 하였다. 신주를 만드는 방법은 주자가례에 잘 그려지고 설명되어 있다. 고조고(高祖考)이하의 신주는 현고조고모관모봉시부군신주(顯高祖考某官封諡府君神主)라고 쓰여 있다. 그리고 부좌(?左)에 효(孝)원손(元孫)아무개봉사(奉祀)라고 쓴다. 그런데 오대조 이상의 신주에는 고모관모공휘자모제기신주(故某官某公諱字某第幾神主)라고 쓰여 있으므로 부좌(?左)에 효 원손아무개 봉사라고 쓰는 것도 없다. 오대조고 신주는 고 영의정○공○시문성부군신주(故領議政○公○字○諡文成府君神主)라고 쓰면 된다는 뜻이다. 위 글의 내용대로 쓰면 관직(官職)과 본관(本貫) 성씨(姓氏)와 이름(名)과 자(字)를 써넣어야 제대로 된 신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당에 신주를 모신 경우에는 참신(參神)이 먼저이고 신주가 없어 지방(紙榜)을 써 붙였을 때는 강신(降神)이 먼저라고 하는데, 주자가례 309쪽에 『요자회(廖子晦)의 광주소간본(廣州所刊本) 가례(家禮)에는 강신(降神)이 참신(參神)의 앞에 있는데, 임장전본(臨傳本) 가례에는 강신이 참신 뒤에 있어 올바름을 얻는 것만 같지 못하다. 대개 이미 신주를 그 자리에 모셨다면 그 신주를 헛되이 볼 수 없고 반드시 절하고 공경해야 하기 때문에 참신은 마땅히 앞에 있어야 한다. 술을 따름에 이르러서는 또 장차 신령에게 잔을 올려 친히 그 신령을 제향(祭享)하는 처음이 되므로 강신이 마땅히 뒤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시조와 선조의 제사는 마땅히 다만 허위(虛位)를 설치하고 신주가 없으면 먼저 강신하고 뒤에 참신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것으로 구에 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는데도 많은 문중이 이에 대하여 잦은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다. 특히 묘제(墓制)를 지낼 때에 봄 삼월(三月)에 길일(吉日)을 택하여 날을 잡아 제사를 지내는 것을 원칙적 제례방식(祭禮方式)으로 기술되어 있다. 어떤 사람이 어찌하여

토지(土地)의 신(神)에게 먼저 하지 않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나는 우리 어버이를 위하여 와서 해마다 제사를 올리는 것이니 정성은 오로지 묘에 있고 토지신은 당연히 그 후에 제사 지내야 한다. 아마도 아버지가 계시고 나서야 토지신이 있을 것이다.” 하는 구절이 가례집설(家禮集說)에 나오는 데도 산신제(山神祭)가 우선이다. 아니다 선대조 묘제(先代 祖 墓祭)가 우선이다. 하는 양분(兩分)된 논리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사의 목적은 효(孝)에서 시작

제사를 지내는 최대의 목적은 효(孝)에서 시작된다. 먼저 조상신을 모셔오는 강신례(降神禮)를 행하고 조상신에게 인사를 드리는 참신례(參神禮)를 행한다.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신 것과 똑같이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데 음식과 과일(果)의 수요는 살아계신 분으로 생각하여 양수(陽數)인 홀수로 차린다. 어동육서(魚東肉西), 동두서미(東頭西尾), 생동숙서(生東熟西) 등의 논리는 신이 오른손으로 음식을 잡수신다는 생각에서이다. 그래서 신의 오른쪽에 좋은 음식을 진설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사음식에는 고추가 들어가지 않으며 ‘치’ 자 이름을 가진 생선도 쓰지 않고, 복숭아는 신을 ◎는 다하여 쓰지 않는다. 그 외에는 우리네 풍속은 각 문중마다 절차는 대동소이(大同小異)하면서도 제수의 진설은 문중마다 다르게 행사하고 있다. 이것은 편협한 학문과 정치적 패거리 의식에 의한 사색당쟁(四色黨爭)에 의한 폐단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면서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現實)이다. 제사라는 것은 자기의 안위를 기원하는 제례로부터 시작하였으므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제일 먼저라는 가르침이 있다.

심지어 짐승인 수달과 승냥이도 자연(自然)과 부모(父母)의 제사를 지낸다는 설화(說話)가 예기(禮記) 왕제편에 『시제수연후전렵(豺祭獸然後田獵-승냥이가 짐승에 제사 지낸 뒤에 사냥을

한다.)과 달제어연후우인입택(獺祭魚然後虞人入澤-수달이 물고기 제사를 지낸 뒤에 우인의 못에 들어간다.)』이라고 전해오는 것에 대하여,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관례와 혼례와 상례와 제례는 예절중의 가장 큰 것이다. 지금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수달과 승냥이도 근본(根本)에 보답할 줄 안다.』라 하였다. 또 눈이 어두워 사냥을 못하는 부모를 위하여 먹이를 잡아 물어다가 부모에게 잡아온 먹이를 토하여 준다는 반포지효(反哺之孝)라는 효의 대명사를 만들어낸 까마귀의 효행(孝行)이 인간들에게 표본이 되고 있지 않은가?

인간(人間)이 나약(懦弱)함을 알고 있는 까닭에 천지신명(天地神明)을 비롯하여 산천후토(山川后土)에게 지내는 제사와 선대 조(先代 祖)에게 지내는 제사 등 제례에 분야도 상당히 많다. 우선 부모가 돌아가신 날 부모님을 비롯하여 조부(祖父)와 증조고(曾祖考), 고조고(高祖考)에게 까지 지내는 기제사는 진씨예서(陳氏禮書)제의(祭儀)편에 보면 하후씨(夏后氏)는 저녁 무렵(闇)에 제사를 지냈고, 상(商)나라 사람들은 한낮(陽)에 제사지냈으며, 주(周)나라 사람들은 제삿날 아침에 시작하여 어두울 때까지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을 보면 우리가 자정을 기하여 기제사를 지내는 것의 원인이 모호하여진다.

사당을 지어 선대조의 신주를 모셨으면 제사 지낼 때에 의식이 약간 달라진다. 우선 감실(龕室)에서 신주를 모셔다가 교의(交椅) 위에 올려놓고 독을 열어 정침(正寢)에 신주를 봉안한다. 그리고 제례를 시작하고 진다(進茶)후에는 합문을 하고 모든 자손들이 사당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데, 예기에는 아홉 손가락의 음식을 잡수실 수 있는 시간이 지나면 계문(啓門)을 하라고 하였다. 계문을 하면 헌관이하 제집사가 정위치하여야 한다.

239호에 2부가 계속 게재됩니다

시조 태위 · 위양공부군 을미년 시향(時享) 공고

회장단 결의에 의거 2015년도 시조부군 시향일을 음력 10월 1일로 환원하여 봉행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 예정임

- ▲ 일 시 : 2015년 11월 12일 (목 음력 10월 1일) 오전 10시
- ▲ 장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547번지 시조 부군 묘소
- ▲ 의 례 : 시조 시향, 4위단 (2·3·4·5세조) 시향 봉행
- ▲ 참석범위 : 국내외 거주 청주한씨 남녀노소 전 종원
- ▲ 식전행사 : 효자·효부상 시상식
- ▲ 기 타 : 문의 및 궁금한 사항은 청주한씨 중앙종친회(02-720-6370)으로 연락 바랍니다.

2015년 9월 21일 청주한씨 중앙종친회

2015년 西原君파 이사회



2015 서원군파 이사회에서 축사하는 基虎 중앙종친회장

지난 9월 9일 11시 서원군파 이사회가 종로소재 은행나무집에서 길수 회장을 비롯한 20여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창하 (회양공29세)총무의 사회로 열린 이날 이사회는 선조님들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자리에 참석한 기호 중앙종친회장의 인사말로 이어졌다.

기호회장은 “길수 회장께서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 모두는 사숙공 (諱·澍)할아버님의 후손들이 일가분들입니다. 종사발전에 같이 힘을 모아 나갑시다. 민족 고

유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일가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빈다”며 인사했다.

西原君 吉洙會長은 인사말을 통해 “회의에 많이들 참석해 주시어 감사드린다. 지난 5월 1일 21위 時享이후 중간에 서정회가 있었지만 오랜만에 뵙게되어 반갑고, 마음을 조금씩만 열어 주시면 더욱 열심히 종사업무에 진력하겠다.”고 인사했다.

이어서 창하 총무로부터 주요업무 보고가 있고, 토의를 진행한 후 오찬을 함께하며 환담을 나눈 후 이사회를 마쳤다.

文靖公下 참판공파(諱 胤昌)종중회

문정공하 참판공(諱 胤昌)종중회가 지난 8월 22일 오전 11시 종로구 수표로 96 국일관 1층 이대감 고깃집에서 종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날 회의에서는 성규(成圭) 전임회장의 後任으로 원로회의에서 추대한 皙道 일



皙道 신임회장

가를 회장으로, 감사에는 유전 일가를 總務에는 의구(懿九)로하고, 이 자리에서 신임 석도회장은 그동안의 문중간 갈등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후 환담을 나누고 오찬을 함께한 후 종중회를 마쳤다.

서울시 宗親會 정기회의

새 회장에 珧秀 · 수석부회장에 佑仁 · 상무에 희달
준석 전회장에게 공로패 전달

서울종친회 정기회의가 지난 7월 29일 영등포시장역 부근 목포식당에서 중앙종친회 성섭 부회장 · 전임 서울종친회장 준석 · 신임 광수회장등 다수 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어서 지난 9월 17일에는 영등포시장역 부근 산청오리고기 식당에서 기호 중앙종친회장을 위시한 광수 서울 종친회장 준석 사숙공 회장 철수 중앙종친회 감사 기항 고문 태교 노원구회장을 비롯한 각 구 회장인 희수 · 경식 경석 평석외 여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희달상무의 사회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광수 회장이 준석 전 서울종친회장에게 공로패 전달에 이어 각 구 회장들에게 서울종친회 부회장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시작되었다.

광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종사에 바쁘신 가운데 기호 중앙종친회장이



광수 신임 서울 종친회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서울 종친회 발전을위해 함께 노력하자며 인사했다.

장학사업에도 보다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이어서 기호 중앙종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강한 모습으로 뵈오니 반갑습니다. 수도 서울의 종친회가 그동안은 다소 침체된 감이 있었습니다

만 광수회장의 취임으로 활성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7교대동족보 · 종친회 위상제고등에 서울종친회가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하며 인사했다. 준석 전 회장은 회장 재임중 별로 한 일도없이 공로패를 받아 송구하다며 앞으로도 서울종친회 발전에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겠다. 이어서 참석하신 각 구 회장 소개에 이어 점심을 나누며 환담을 나누고 광수 회장님이 준비한 기념품을 나누어 가지고 회의를 마쳤다.

청주한씨 봉찬회 해체



동춘 봉찬회 회장이 基虎 중앙종친회장에게 통장을 전달하는 모습

청주한씨 봉찬회(회장 · 동춘) 모임이 9월 21일자로 해체 되었다. 그동안 시조 봉향일 음력 환원을 위해 노력하여, 종친회 회장단 회의에서 음력으로 환원이 결

정되자, 해체 하기로 하고 특히 그동안 봉찬회 활동을위한 기금중 잔액 삼백팔십여만원을 중앙종친회에 시조시향시 獻誠金으로 基虎 종친회장께 전달했다.

커피타임 포토클럽 회원전

2015년 제 4회 커피타임 포토클럽 회원전이 지난 8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개최되었다. 본 종친회 여러 행사에 협조하시고 종친회 발전에 物心兩面으로 수고하시는 元教 일가도 작품을 출품했다 우리나라 사진예술의 메카 총무로에 기반을 두고 사진활동을 하는 커피타임 포토클럽은 이번 전시회를 생명의 근원인 물을 주제로 전시회를 준비하였으며, 한국사진작가협회 추천작가인 원교 일가는 청정해송(淸靜海松)이라는 작품명으로 출품했다

基虎 中央宗親會長을 비롯한 다수의 일가들이 직접 전시회를 참관하고 그간의 작품활동 노고를 경하하고 인근 식당에서 식사후 축하모임을 마쳤다.



2015년 시조 시향일은 음력 10월 1일 (양력 : 11월 12일)

시조묘 · 세일재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547

종친회
탐방

半月宗中 巡訪 基虎회장 就任후 첫 방문



基虎中央宗親會長은 지난 7월 26일 경기도 안산시 반월중종을 순방하고 일가분들과 정겨운 歡談을 나누었다. 이 날 中央宗親會에서는 기호 회장을 비롯 준석 사숙공회장 · 성섭 부회장 · 성룡 자문위원 · 상영 감사가 참석하였으며 반월중종에서는 동완 參判公 회장 동신 參判公 총무 · 규동 전참판공 회장 · 一鎔 參判公부회장 東權 반월종중회장 · 東厚 倉宇종중회장 · 동기 中央宗親會 理事 외에 다수의 宗賢들이 참여하여 자리를 빛냈다.

基虎會長은 인사말을 통해 “東權 회장께서 招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처음으로 宗中을 방문하게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우리는 모두 蘭자 할아버지의 후손으로서 혈연으로 맺어진 宗親들”이라고 말하며 崇祖敦宗의 정신으로 모두가 발전하는 자리가 되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동수 일가의 반월중종 소개와 巡訪기념 陶器를 반월중종 東權 회장이 基虎宗親會長에게 贈呈했다. 참석자들을 위해 東厚 반월장우종중회장이 순방 기념타올을 증정하고 東完 參判公 회장의 인사 말씀에 이어 다수의 종원들과 함께 복달임 행사를 가지고 뜻깊은 순방 행사를 모두 마쳤다.

淸韓山岳會 정기산행 우리나라 최초담인 괴산담 산막이에서



지난 8월 23일 淸韓山岳會 정기산행이 충북 괴산군 괴산담이 있는 산막이에서 基虎 중앙종친회장을 비롯한 40여명의 일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 날 오전 8시 광화문 中央宗親會를 출발하여 경부고속도로를 진입하여 산악회 살림을 맡고 있는 종인 일가의 사회로 먼저 산악회 주태회장을 대신하여 삼랑 부회장의 간단한 인사말에 이어 基虎 中央宗親會長은 “두어달 만에 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다고 인사하며 사회분위기가 어수선하여 걱정이있습니 다만 잘 해결되리라 봅니다. 우리는 가지는 만가지이지만 뿌리는 하나라는 萬枝同根임을 인식하여 종친회 발전에도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인사했다. 10시 30분경 현장에 도착하여, 산막이 길을 가는 회원들과 산행을 하는 회원들로 나누어 즐거운 시간을 가진 후 주차장 인근의 식당에서 즐거운 오찬을 가진 후 산행행사를 마무리했다.

제 11회 한 석봉 추모제 개최

지난 8월 14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석봉 한호선생 추모식이 석봉 한호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 박 경원) 회장 황 선 주최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基虎 중앙종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서성 석봉 할아버님의 위업을 선양치 못한데 대하여 송구한 마음이 앞선다고 인사하며, 석봉 한호 선조는 저의 청주한문으로서

도 자랑스럽게 되시는 분입니다. 登第公 韓 謝壽님의 11대손으로 조선 선조 때의 서예가 이시며 諱는 護요 자는 景洪이요 호는 石峯 淸沙이십니다. 앞으로는 우리 선조님이신 석봉한호선생 추모식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며 인사했다. 황 선 회장은 참석에 감사한다는 인사와 함께 청주한씨 중앙종친회와도 유대를 돈독히 하겠다며 인사했다.

모범 종인 소개 송희 일가 이학박사 학위 취득

청주한씨 參議公파 (현 감사공파) 태문 장녀 송희가 이학박사 (생명과학과) 학위를 취득 하였습니다.

송희 박사(1986년 생)는 건국대학교 생명과학과에 2005년 입학하여 학기 내내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였고, 졸업과 동시에 동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금번 박사과정을 4년6개월만에 조기 이수하고 박사논문(항암치료 개발과 연구부)을 통과하여 2015년 8월 24일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하였습니다.

평소 송희 박사는 1남 2녀의 장녀로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명량한 성격으로 중,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의 우수한 성적을 유지 하였으며 대학



교 2학년 때부터 실험실에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학회 세미나에 발표하는 등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학업에 충실 하였습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연구와 학생들의 강의를 하고 있고 포스터닥터 과정도 이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생 국인 한의사(1989년 생)는 2014년 우석대학교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우석대학교 한방병원에서 인턴과정을 거쳐 현재 래지던트 전문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며 형제가 질병으로 부터 인류를 구원하고 생명을 중시하는 의학에 종사하고 있어 청주한씨 한문의 크나큰 영광과 가문의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1년에 2만원만 보내 주시면 ‘종보’는 독립채산이 됩니다

종보(宗報)를 받아보시는 일가 여러분. 종보 구독료가 1년에 2만원 입니다. 구독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종보 제작비를 지원하여 중앙종친회 운영에 참여하고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1년에 2만원만 보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청주한씨보’는 우리 100만 일가들의 소식지로, 화합의 마당으로, 한문의 역사를 기록하는, 모든 일가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하고도 유익한 매체(媒體)입니다만 적자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종보’를 구독하시는 일가분들이 ‘종보’는 받아보시면서 종보비를 보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1년에 단 한번 2만원만 보내주시면 ‘종보’는 중앙종친회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독립채산으로 제작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009901-04-016841 청주한씨중앙종친회
‘청주한씨보’ 발행인 한기호 (중앙종친회장)